

# 게임

14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 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 | 넥슨, 디즈니 출신 닉 반 다이크 수석 부사장 영입



넥슨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문가를 영입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게임 IP의 영향력을 글로벌 시장으로 넓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넥슨의 인기 IP인 '던전앤파이터',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왼쪽부터). 사진제공 | 넥슨

### 엔씨소프트 '블레이드&소울2' 8월 출시



엔씨소프트의 올해 최고 기대작인 '블레이드&소울2'(이하 블소2·사진)가 드디어 출격한다. 엔씨소프트는 블소

2를 8월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블소2는 김택진 대표가 본래 '블소M'이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IP로 만들었다고 소개한 멀티플랫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리니지' 시리즈에 편중된 엔씨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 줄 기대주로 꼽힌다. 게임의 특징은 3D 오픈월드와 새로운 스타일의 전투 및 경공 시스템, 서포터 타입의 신규 클래스 '법종', 오픈월드 레이드 콘텐츠 '토벌', 오리지널 스토리 '사가' 등이다. 엔씨는 블소2 브랜드 페이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도 돌입했다. 블소2 출시와 연관된 3가지 키워드 '언베일링(UNVEILING)', '카운트다운(COUNTDOWN)', '피날레(FINALE)'를 공개했다. 출시 전까지 각 키워드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 넷마블 '마블 퓨처 레볼루션' 프로모션 영상 공개



넷마블은 모바일 오픈월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마블 퓨처 레볼루션'(사진)의 신규 프로모션 영상을 공개했다.

오메가 플라이트 요원들이 비밀 접선해 지구에서 발생한 기이한 사건들을 브리핑하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최근 영화 및 드라마에서 활약 중인 배우 서이숙이 영상 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넷마블과 마블의 두 번째 협업 타이틀인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전 세계 1억 2000만 명 이상이 즐긴 '마블 퓨처파이트'를 통해 글로벌 노하우를 쌓은 넷마블몬스터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슈퍼 히어로 집단 오메가 플라이트가 컨버전스로 인해 위기에 빠진 세계를 지켜 나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넷마블은 하반기 중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 카카오게임즈 '엘리온' 북미·유럽 서비스 담금질



카카오게임즈는 PC게임 '엘리온'(사진)이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북미, 유럽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두 번째

비공개 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엘리온은 현지 서비스를 위한 새 홈페이지를 오픈했으며, 26일부터 사전 주문도 시작한다. 엘리온은 2021년 가을 북미와 유럽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테스트에서 막바지 콘텐츠를 점검할 예정이다. 엘리온은 '테라'를 만든 게임 제작 명가 블루홀스튜디오의 개발 노하우가 집약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 넥슨 '필름&TV' 신설...게임 세계관 확장한다



닉 반 다이크 수석 부사장

K게임의 세계관을 넓힌다. 게임인들이 인기 게임의 지적재산권(IP)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게임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웹툰과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관련 기업과 제휴를 맺거나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넥슨도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문가를 영입하고, IP 영향력을 글로벌 시장으로 넓히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 엔터 업계 전문가 영입

넥슨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문가인 닉 반 다이크를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전략 책임자(CSO)로 선임했다. 반 다이크 수석 부사장은 넥슨의 글로벌 전략 수립과 인수 합병(M&A), 경영 개발, IP 관리 및 파트너십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엠바크 스튜디오'의 신작 등 글로벌 IP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에 넥슨 필름&텔레비전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반 다이크 부사장은 이 조직의 총괄도 겸임한다.

픽사·마블 인수 진행 핵심적 인물던파·바람 등 인기 IP 영향력 확대

컴투스 '서머너즈 워' 코믹스 출시 크래프톤은 '배그' 단편영화 공개



넥스코리아 판교 사옥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액티비전 블리자드 스튜디오의 필름&텔레비전 부문 대표를 역임한 반 다이크 수석 부사장은 월트디즈니에서 10년 동안 기업 전략 및 사업 개발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디즈니 제작 시절 픽사와 마블, 루카스필름 인수와 디즈니 사업 전반의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반 다이크 수석 부사장은 "넥슨은 블록버스터급 IP의 성공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데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특별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며 "넥슨의 글로벌 IP와 플랫폼이 가진 큰 성장기회를 더 확대해 나갈 조직을 현재 LA에 구성 중이다"고 말했다. 넥슨은 앞서 월트디즈니의 최고 전략 책임자 출신의 케빈 메이어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 컴투스·크래프톤 등도 IP 확장

넥슨 외 다른 게임사들도 게임의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IP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컴투스는 전 세계 1억 다운로드를 돌파한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의 세계관을 발전시켜 100년 이상의 스토리를 가진 '서머너즈 워 유니버스'를 구축했다. 2019년 스카이라이프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서머너즈 워: 프렌즈 앤 라이벌'을 시작으로, 올해 4월에는 코믹스 시리즈 '서머너즈 워: 레거시'를 출간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웹툰도 제작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은 배우 마동석 주연의 단편영화 '그라운드 제로'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근 공개했다. 배틀그라운드 세계관인 '펍지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9분가량의 짧은 단편영화로, 화려한 액션을 즐길 수 있다. 크래프톤은 앞서 배틀그라운드 탄생 비화를 담은 '펍지 유니버스' 기반 다큐멘터리 '미스터리 언노운: 배틀그라운드의 탄생'도 공개했다. 또 '배틀그라운드'의 영상화를 위해 드라마 제작사 히든스퀀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스마일게이트도 IP확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소니픽처스와 '크로스파이어' 영화 배급 계약을 맺어 본격적으로 할리우드 영화 시장에 뛰어 들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중국에서 e스포츠 드라마 '천원화신'을 방영해 18억뷰라는 흥행을 기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영화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처스와 합작법인 스마일게이트리얼라이즈를 설립하기도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T1, 'LCK 천적' 담원전 7연패 끊었다

6주차 경기서 2연승 4위 도약 3위와 2포인트차...PO행 발판



T1이 천적 담원 게이를 잡아내며 플레이오프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T1은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종로 그랑서울에 위치한 LCK아레나에서 열린 '2021 리그오브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6주 차 경기에서 2연승을 달성했

다. 직전까지 모든 주차를 1승 1패로 마쳤던 T1은 15일 KT 롤스터를 2대0으로, 17일에는 담원 게이를 2대1로 꺾으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특히 담원 게이를 상대로 한 승리는 T1에 의미가 컸다. T1은 이전까지 담원 게이에 7연패를 당하고 있었다. 2020 LCK 스프링 2라운드부터 2021 LCK 서머 1라운드까지 담원 게이에 모두 패했다. 17일 경기에서도 1세트를 내줬지만, 묵직한 뒷심을 발휘하며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다. 이



T1 선수단

로써 T1은 7승 5패로 아프리카 프리क्स와 리브 샌드박스스를 따돌리고 4위로 뛰어올랐다. 3위 담원 게이와도 세트 득실에서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향후 승위

를 끌어 올릴 가능성을 높였다.

6주차 경기에서 관심을 모은 또 하나의 팀은 농심 레드포스였다. 담원 게이와 KT 롤스터를 연파하면서 4연승을 질주했다. 특히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담원 게이를 격파하면서 순위 바꾸기에 성공했다. 이후 경기에서도 담원 게이는 T1에 달미를 잡힌 반면, 농심 레드포스는 KT 롤스터를 2대0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농심 레드포스는 9승 3패, 세트 득실 +9로 젠택스에 이은 2위에 이름을 올렸고, 3위 담원 게이와의 격차도 두 경기로 벌리며 앞서 나갔다.

김명근 기자

##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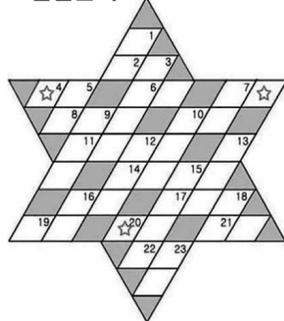
### 스도쿠문제

	8	7		6		9	2	
9			3		2			5
1				7				6
	9					1		
6		3				4		8
	2						9	
3				2				4
8			7		1			9
	7	9		4		5	6	

### 스도쿠정답

1	9	5	6	8	7	9	6	2
6	8	2	1	5	7	2	9	3
7	8	7	9	2	6	1	5	8
2	6	8	1	9	5	2	7	3
8	9	7	2	6	3	8	1	9
2	1	9	6	5	8	7	9	6
9	7	8	6	2	5	3	8	1
5	2	6	7	9	1	2	8	9
8	2	6	7	9	1	2	8	9
6	1	7	9	8	2	5	3	7
5	8	2	6	1	7	9	8	3
2	9	6	8	7	1	9	5	3
7	9	8	6	2	5	1	3	7
8	2	5	1	6	9	7	2	8
9	6	2	7	9	8	1	5	3
7	2	1	2	8	6	5	9	3

### 날말문제



### 가로열쇠

02. 신문 등에서 사생활 따위를 다룬 기사. 04. 나이 많은 남자 노인을 일컫는 말. 06. 남편의 집안. 07. 이미 정했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 08. 로

켓 엔진을 추진력으로 목표물에 닿아 폭발하도록 만든 무기. 10. 결혼할 당사자들이 만나 보는 선. 11.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 14.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 16. 잘못 보거나 생각함. 17. 질그릇·사기그릇 따위의 총칭. 19. 반을 돈을 거둬들임. 20. 나라끼리 사이가 좋음. 21. 길을 같이 감. 22. 어떤 사람을 간절히 그리워함.

### 세로열쇠

01. 벗짐·밀짐·갈대 등으로 지붕을 인 집. 03.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 05. 설탕, 꿀 따위의 당분이 있는 것에서 느끼는 맛. 07.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을 고쳐 더 좋게 만들. 09.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 날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날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용하여 놓으면 여러번이 잘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